

전주시, 출퇴근 교통정체 줄인다

다양한 도로개설·확장·교량 재가설·교차로개선사업 등 전개로

전주시는 교통수요에 비해 좁은 도로를 넓히고 불합리한 도로구조는 개선하는 등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한다.

시는 각종 도로개설사업과 도로확장사업, 교량재가설 사업, 교차로개선사업 등을 통해 출퇴근시간 교통정체 등 시외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시민 등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총 300억원을 투입해 국립전주박물관에서 국대로 나들목(쑈고개)까지 2.1km 구간을 현행 폭 15~18m에서 두 배 이상 넓은 35m로 확장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김제·정읍 방면 출퇴근 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내년까지 발단네거리에서 전미교까지 동부대로 340m구간을 현재 폭 18~21m에서 35m로 확장하고 동산역 앞 130m 구간의 도로를 폭 27m에서 35m로 확장하는 등 동부대로 도로확장사업을 통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만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가지지를 통과하는 국도 17호선과 27호선의 교량량 분산으로 시내권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완주군 용진면에서 완산구 석장동까지 10.2km 구간을 잇는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진~우아)건설 사업을 할 계획이다. 앞서 익산지방국



전 전주 주민자치위원장들, 지혜의 반찬 후원금 전달.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했던 전임 위원장의 모임인 전(前)전주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는 12일 소외계층 아동들에 대한 맞춤형 도서지원으로 마음의 양식을 채우도록 '지혜의 반찬' 후원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채규남 기자

도관리청은 지난 2016년부터 용진~용진구간을 대상으로 한 북부권 국도대체도로 1공구 개설을 완료했고 용진~우아구간도 오는 2023년까지 300억원의 시비를 투입해 용진매입을 완료하는 등 북부권 우회 교통망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시에 시는 완주군과 익산지방국도관리청과 함께 중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고 연결도로보다 폭이 좁아 병목 현상이 발생한 하리고 확장사업도 추

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덕진구 전미동과 완주군 삼례읍을 연결하는 주요 교량인 하리고는 올 연말까지 기존 2차로(폭 8m)에서 4차로(21m)로 확장돼 병목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린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접속하는 5지 형태의 기형적인 교차로인 금암광장도 상습정체와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4지교차로 형태로 개선하고 별도의 교차로를 신설하

는 것을 골자로 한 금암광장 기하구조 개선사업도 검토하고 있다. 또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까지 개선사업용역을 마무리한 뒤 총 19억 원을 들여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도시개발지구와 연결된 연계도로를 신설하는 등 외곽지역에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주변지역과의 교통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규남 기자

구천동 삼공탐방지원센터 공중화장실 동파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허영범) 구천동 삼공탐방지원센터 안내소 옆 공중화장실이 동파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탐방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덕유산국립공원은 최근 공중화장실이 연일 한파로 인해 파열됐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주변에 탐방객들의 무단 방뇨로 인해 심한 악취는 물론 주변 상인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주변 상인들은 국립공원사무소에 적당한 조치를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분개하고 있다.

상인들은 "계속된 한파에도 공중화장실 보온관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며 국립공원을 비난했다.

주민들은 "추운날씨에 탐방객들이 공중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자 주변 가정집에 화장실 사용을 호소해 어쩔 수 없이 이음을 허락했다"며 주민 생활 피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덕유산국립공원을 맹비난했다. /무주=전문식 기자

설연휴 전주 공영주차장 정상 운영

전주시설공단은 설연휴 기간에도 공영주차장 82개소(유료 20개소)를 정상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 및 시민들을 위해 지난 5일부터 공영주차장 종합 시설점검 및 환경정비를 진행해 왔다.

또 고향을 찾는 이용객을 위해 유료 주차장 일부가 무료로 개방, 대규모 주차면수를 보유한 종합경기장은 15일~18일, 동문원 및 노송천 주차장은 15일~16일, 한옥마을 노상주차장과 삼천동, 중화산동, 건산천1·2, 실내체육관 주차장은 16일(명절당일) 무료로 개방한다고 설명했다.

기타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한 문의는 전주시설공단 주차운영부(☎ 239-2612)로 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상습적으로 음식값 훔친 60대 종업원 달미

자신이 일하는 음식점에서 상습적으로 음식값을 훔친 60대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2일 절도 혐의로 A(6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11시7분께 군산시 한 음식점에서 손님이 건넨 음식값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모두 27차례에 걸쳐 58만여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A씨는 업

데이트 위해 차 훔친 20대 연인 검거

자신들의 데이트를 위해 차가 쫓긴 차를 훔쳐 달아난 20대 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2일 특수절도 혐의로 A(24)씨와 여자친구 B(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10시 23분께 전주시 장동의 한 도로에서 차가 쫓겨있는 C(35)씨의 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삼민 기자

주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현금 손님만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그녀는 계산대에서 손님이 내는 음식값을 금고에 넣고 불태워 앞치마에 넣어 훔치는 수법을 이용했다.

매번 돈이 비자 업주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경찰은 A씨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이삼민 기자

이들은 차량열쇠를 찾아놓고 잠시 차량에서 하차한 틈을 이용해 차량에 불태워 승차한 뒤 시동을 걸어 달아났다.

조사결과 경찰에 잡히지 않기 위해 폐차장에서 번호판을 구해 부착하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피해 신고 접수 후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달미를 잡았다. /이삼민 기자

전주벤처촉진지구 기업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시제품제작 최대 1500만원·맞춤형성장 3000만원·인증지원 250만원 등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이하 'JVADA')는 12일 전주시 팔복동 첨단벤처단지 지역혁신관에서 중소·벤처기업 대표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기업지원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사업설명회는 기술, 경영,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우수 아이템 사업화를 촉진해온 JVADA가 올 한 해 추진할 사업들을 소개하는 자리로 △시제품 개발 및 제작 등을 지원하는 벤처기업육성사업 △구인·구직 연계 지원 사업 △공속가공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사업 △혁신형 창업기업 육성사업 등이 소개됐다.

특히 시제품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업체당 최고 1,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업정밀진단 및 맞춤형성장 지원사업으로 업체당 최고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인증분야의 경우 JVADA는 △경영 인증(벤처기업확인, 기술혁신형 기업(Inno-Biz), 경영혁신형기업(Main-Biz)) 및 지식재산 관리와 지원 사업 △기술 및 품질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인증지원 사업(업체당 최고 250만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자금유치 전문인력지원 사업 △기업육성 모델 및 기업의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한 혁신형 기업 교류회 지원사업 등 6개의 벤처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청년 창업 도전을 지원하는

△창업·재창업 지원 사업, 일자리창출 및 재직자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인·구직 연계 지원사업 등 중소·벤처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JVADA 내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전주 지역 금속가공 소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경영·마케팅·작업장 환경개선 등(각 항목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기술에 해를 및 신제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공동 인프라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원사업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JVADA 사무국(063-219-0389)으로 문의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주의

전주시가 시민들과 귀성객들이 즐겁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식중독의 주범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는 냉장상태에서도 생존이 가능하고 소량으로도 감염될 수 있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로 오염된 음식, 물을 섭취하거나 바이러스가 묻은 물건을 접촉함으로써 입을 통해 주로 감염된다. 바이러스가 몸 속으로 들어가면 24시간~48시간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뒤 오심과 구토, 설사의 증상을 일으키게 된다.

이에 대해 시는 노로바이러스 감염 없는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 △굴 등 수산물만 익혀먹기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섭취하기 △채소·과일은 수돗물로 세척 후 섭취하기 △조리하기 전과 식사하기 전 반드시 손 씻기 생활화 등을 당부했다. /채규남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